

사업체 매매
 오렌지카운티 터스틴·어바인 지역에서
 영업중인 중식당(한국식/미국식)
 리스기간 5년 이상/ 순이익 2만불
 (949) 501-8555 Leah Ivy Chang

부동산 · 경제
 BUSINESS · REAL ESTATE

전 당 포
 LC3019-0990
 가주 최대 규모 / 최고 가격 보장
 한인 최초 감정사 / 절대 비밀 보장
 각종 명품, 귀금속, 시계
 (714) 647-0005 / (714) 647-0007
 318 W. 4th St., Santa Ana, CA 92701

미 자동차 시장, 웃돈 판매 확산



▲ 기아 텔루라이드. 사진=기아자동차

공급자 우위 시장이 돼버린 미국의 자동차 매매 시장에서 인기 차량 모델을 중심으로 권장 소비자 가격을 넘는 웃돈 요구와 옵션 끼워팔기 등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30일 '연합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차량 생산이 차질을 빚고 수요가 늘면서 급격히 공급자 우위

의 시장 환경으로 변했다. 특히 차량 중개상들은 최근 인기를 끄는 신차 모델들을 중심으로 제조사의 권장 소비자가격(MSRP)보다 높은 판매가를 부르거나 비싼 옵션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WSJ은 플로리다에 사는 켄 베어드(61)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베어드 씨는 최근 딜러 매장에서 기아 텔루라이드에 4만5천 달러의 가격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3천 달러를 더 주겠다고 하면서 살 의사를 밝혔으나 중개상은 5만5천 달러를 요구해 텔루라이드는 포기하고 다른 매장에서 도요타 하이랜더를 샀다.

미국 자동차 시장은 딜러와 소비자가 흥정을 벌여 이보다 더 싼 가격에 차를 매매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반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JD파워에 따르면 2019년에 팔린 차량의 판매 가격은 권장 소비자가격 대비 85%에도 못 미쳤으나 올해 6월에는 이 비율이 94%에 달했다.

미 CFO들 연준 인플레이 통제 능력에 낮은 신뢰



▲ Fed 건물 전경. 사진=shutterstock

미국 대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인플레이션 통제 능력을 낮게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9일 '연합뉴스'는 CNBC 방송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2분기 '글로벌 CFO 자문위원 설문' 결과를 전했다. 이 설문은 지난 1~16일 미국을 중심으로 대기업 CFO 4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 결과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연준의 능력에 대해 미국 지역 응답자의 47%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많이 신뢰한다'나 '다소 신뢰한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고 38%만이 '극히 조금 신뢰한다'고 답했다.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CFO들이 신뢰한다는 응답률이 오히려 더 높았다.

응답자들은 최대 외부 위험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을 가장 많이 꼽았다. 코로나19 사태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1분기 설문 때는 인플레이션을 꼽은 응답자가 거의 없었다.

향후 6개월간 가장 많이 비용이 증가할 항목으로 미국 지역 응답자들은 57%가 인건비를 꼽았고 원자재 비용(37%)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CFO들은 원자재 비용(72%)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미 주택 가격 30년 만의 급등세

미국의 4월 주택가격이 1년 전에 비해 14.6%나 상승했다. 30년 사이 최대의 이상 급등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에 대한 논란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29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S&P500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전미 주택가격 지수는 14.6%가 올랐다. 이는 전달의 13.3% 증가와 비교해 상승 폭이 더 커진 것이다. 미국의 집값은 11개월 연속 상승했다.

20개 주요 도시의 집값은 상승 폭이 더 커 14.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전문가 예상치 14.5%

증가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도시별로는 피닉스, 샌디에고, 시애틀이 20%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 피닉스는 22.3%, 샌디에고 21.6%, 시애틀 20.2% 급등했다. 집값 비싸기로 소문난 샌프란시스코는 1년전에 비해 15.1%, 로스앤젤레스는 14.7% 상승했다. 이외 보스턴 16.2%, 텍사스 달라스 15.9%, 플로리다 템파와 콜로라도 덴버, 오레건 포틀랜드고 각 15.4%나 대폭 올랐다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주택 가격 상승을 우려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지금 추락할 것 같지는 않다." 라고 예상한 바 있다.

ONE GROUP REALTY
www.OneGroupRealty.com

상담
Charles Lee
714.614.2426
charleslee@onegrouprealty.com

Charles Lee/Broker
Lic. #01361071, 01861239

주택 Cypress - For Sale

\$615,000

CYPRESS - 최고 학군 LUXURY CONDO
2 BEDS + 2 BATHS
1,042 sq.ft.
*CUL-DE-SAC
*2 CAR Attached Garage
*Oxford/Cypress High/ Lexington Jr. High
Landell & Arnold Elementary

주택 Bellflower - Duplex

\$850,000

A. 2 BED + 2 BATH (1655 sq.ft. Estimate)
Rent: \$2695 per month
B. 1 BED + 1 BATH (400 sq.ft. Estimate)
Rent: \$1200 per month
*2 CAR GARAGE + DRIVE WAY
*TENANT (MONTH TO MONTH LEASE)
*조용하고 안전한 동네입니다.

Cerritos - Single Family Home

SOLD
\$979,000

Detached Single Family Home
4 Beds + 3 Baths PLUS Bonus Room
2,486 sq.ft.
5,950 sq.ft.
*조용하고 안전한 동네입니다

집 부동산은 브로커 찰스 리에게!

집/ 커머셜/ 오피스/ 창고/ 비즈니스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 LA HABRA - COMMERCIAL FOR LEASE

\$1.30 PER SQ.FT.

SMALL RETAIL/ OFFICE SPACE
A. 912 SQ.FT.
[STREET FRONT OFFICE/RETAIL SPACE]
B. 400 SQ.FT.
[OFFICE SPACE]
*MODIFY GROSS LEASE (NO NNN)
*MOVE-IN READY
*ONSITE PARKING

주택 FULLERTON - LEASE

LEASED
\$3,150 per month

AMERIGE HEIGHTS PLAZA WALK FOR LEASE
3 BEDS + 2.5 BATHS 1,524 SQ.FT.
*FISLER ELEMENTARY, SUNNY HILL HIGH
*JULY 이사 가능
*INTERIOR ACCESS SUBJECT TO APPROVED APPLICANTS ONLY!

LA MIRADA - 단층 싱글홈

\$799,000

4 BED + 2.5 BATHS
1,681 sq.ft, 5,884 sq.ft. (LOT)
*FULLY REMODEL 한 집
*안전하고 조용한 동네
*한국타운, 마켓, 쇼핑몰 근방

Buena Park - 럭셔리 싱글홈

\$999,000

4 BEDS + 2.5 BATHS
2,266 sq.ft, 8,400 sq.ft. (LOT)
*LOS COYOTE COUNTRY CLUB 골프장 근방
*3 CAR Attached Garage *LONG DRIVE WAY
*FULLY REMODEL 한 집
*SUNNY HILL HIGH SCHOOL